

전남도,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추진 가속도

재생에너지·전력망 국비 1천979억 확보 전남 전역 AI 기반 분산전력망산업 육성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총 1천9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는 17일 “2025년 정부예산에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 총 1천979억원의 미래에너지핵심사업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은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1천196억원(총사업비 1조30억원),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245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초전도



‘AI시대 지역균형성장’ 강연회

17일 오후 전남도청 영인실에서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성 미래비전연구소 대표 초청

‘AI시대 지역균형성장 전략’ 강연회가 열렸다.

〈전남도 제공〉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원(총사업비 406억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5억원(총사

업비 425억원),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83억원(총사업비 300억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50억원) 등이다.

전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접속 지연 완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남은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문제 해소가 시급한 지역으로 AI 기반 ESS 구축과 공유형·커뮤니티 ESS 도입을 통해 지역 단위의 촘촘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모델을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2027년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도 국비가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하는 것이다.

전남·광주를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청년 인재와 에너지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내구성 시험센터가 구축된다.2025년부터 2028년까지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비 확보를 통해 전남도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 AI·디지털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 에너지 인재·창업 생태계 조성, 핵융합 기술 선도, 해상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교육

실행주체 500여명 대상 3년간 경험 공유

광주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영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한 ‘통합돌봄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할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강사로는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광주시 돌봄정책과 공무원이 나섰다.

교육 내용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간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통합돌봄 운영 원칙·지침,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 대상자 선정·적용 기준,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요령,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운영 요령 등이다.

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시민에게 의료·건강관리·임상생활 지원·주거 환경 개선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를 넘어선 돌봄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광주우국제도시상,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2025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등을 수상해 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 /변은진 기자

시립수목원,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 등록

전국 38번째...24ha 수목유전자원 1천47종

형오시설 훼손지서 녹색복자공간 탈바꿈

광주시립수목원이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17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수목원이 광주시 제1호이자 국내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으로 ▲10ha 이상 부지 확보 ▲천종 이상 수목유전자원 보유 ▲전문인력 배치 ▲재배·관리·전시시설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시립수목원은 시민들이 형오시설로 인식해 외면받던 광역위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해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자연과 수목유전자원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은 24만㎡(24ha) 규모로 1천47종의 다양한 수목유전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은 24만㎡규모로 1천47종의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자센터 등 관리시설과 전시온실 등 10개 주제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자연 관람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등 관리시설과 전시온실, 한국정원, 잔디광장 등 10개 주제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자연 관람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립수목원은 2023년 10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5만명을 기록했다. 숲해설, 생태환경 프로그램,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생태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다.

시립수목원은 2008년 형오시설로 인식되던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공원형 수목원 조성을 계획

하면서 시작했다. 광주시는 2017년 수목원 조성 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12월 준공했다. 조성 단계부터 공립수목원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춰고 편익시설 보완을 거쳐 2023년 10월20일 정식 개원했다.

정준호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해 수목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재난 발생시 민·관 협력 강화

나주시 워크숍...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전남도는 1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25 민·관 협력 재난안전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워크숍에는 송하동 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전남지사 회장,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최낙삼 회장과 백미실 여성회장, 박석정 한국열린리시공업회장, 이건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

남지사 센터장 등 민·관 협력 위원을 비롯해 도, 시·군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김종도 SOS컨설팅 대표의 생활 속 재난 안전 대응 강의, 최형호 전남도 소방본부 소방교육과장의 재난 현장의 대응 및 복구 지원 사례 강의, 주현욱 마음안심리상담센터장의 재난 스트레스 회복과 심리 치유 강의 등 실제 재난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양시원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층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혼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컴퓨터
FAX
판매
A/S

T.375-5880

CMYK